

〈창간호〉

함·즐·함·울

96교회 표어

“기억하라”

(전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
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12:5)

발행인: 남녀연합선교회 (본 선교지는 두달마다 발행합니다) 1996년 8월

발

간

사

이 재 철(주님의 교회 담임목사)

함·즐·함·울

어느덧 대식구가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마침 남녀 선교회에서
교인들의 소식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정말 적절한 나눔으로 봉사가 아닐 수 없습
니다.
아무쪼록 정성스럽게 엮어지는 이 지면들이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함
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참된 나눔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즐·함·울” 창간호에 바라는 작은 소망

이 재 원 장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들이 서
로 돕고 사랑하며 각자의 맡은
분량과 분수와 재능대로 일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어언 8주년이
지나고 보니 남녀노소 할 것 없
이 가족처럼 한데 모여 오순도
순 시작되어진 작은 개척교회가
어느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듯 많은 성도들
로 가득차게 되어 이제는 말로
만으로는 부족하여 지면을 통해
서로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
감회가 새롭고 주님께 대한 믿
음이 한층 더 두터워진 것 같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성
전보다 마음의 성전을 건립하기
에 힘썼고 전시적인 사업보다
소리없이 뒤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선교구제에 힘쓰는 것
이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할 것이
라 생각해온 우리 교회가 하나
님의 새로운 뜻을 받들어 오늘

날 선교차원에서 정신여고의 강
당을 건립하고자 하는데까지 발
전한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
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로 흔치 않은 일이라 착공
에서부터 완공까지에는 학교당
국 기타 관계자들과의 많은 어
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과 연륜이 많으신
성도님들의 지혜와 격려, 젊은
이들의 새로운 지식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과거에는 이 사업
에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의 새로
운 관심과 이해로 우리가 다함
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듯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할때만 하
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
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남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일들만 고집하다
가 흔히 작고 사소한 일들을 소
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
다. 위대한 인물뒤에는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준 더 위대한
어머니가 있는 법입니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남

의 의견에 귀기울일줄 아는 사
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의 큰
뜻을 알고 받드는 사람일 것입
니다. 마음속의 자(尺)를 만들
어 자신들의 자로 서로를 재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어리석음
을 범하지 맙시다. 서로가 서로
를 이해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
하여 우리들 마음속의 담을 허
물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사
람들의 소중한 마음들이 ‘함즐함
울, 지를 통하여 전해졌으면 하
는 마음 간절합니다.

‘함즐함울, 발간을 계기로 서로
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만들어
갑시다.

끝으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
려 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을 주신 하나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서로간의 관계회복을 갖게 하시
고 특히 교회에서 주위와의 관
계를 소홀히하고 하나님만을 바
라보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
원해 주시옵소서.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례 12:15

400
2018.9.30

2018년 주님의교회 표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요한복음 3:16-17, 창세기 12:3, 마태복음 9:35)

오늘의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23

오늘의 주요기사

- 2 설문조사 보고, 운동회
- 3 교회 소식
- 5~20 30주년 기념 설문조사 특집
- 21~23 함즐함울 400호 특집
- 24 아가나들이 / 공동체 소식

교회 일정

- 10/3(수) 전교인 운동회
- 10/5(금) 금요기도회
- 10/7(주일) 1차 향존직 선거(공동의회)
- 10/14(주일) 2차 향존직 선거, 정기당회
- 10/20(토) 통일선교바자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400호를 펴냅니다. 1996년 8월에 창간된 〈함즐함울〉이 만 22년이 갓 지난 2018년 9월 400호를 맞았습니다. 그 동안 표제어 로고와 여러 번 바뀌고, 발간 주기도 처음 두 달 간격에서 2~3주 간격으로 바뀌기는 했으나, 주님의교회 공동체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례 12:5)는 〈함즐함울〉의 기본 정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로고들을 살펴볼 수 있는 〈함즐함울〉 지난 호들을 모았습니다. > 관련 특집 21~23면

전교인 설문조사 결과당회 보고

기초적인 분석 내용도 함께 발표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되었던 창립 30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결과가 9월 16일 당회에 보고되었다. 교인 기본사항, 교회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 교회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10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번 설문조사는 3주에 걸쳐 4,217부가 배포되었고 2,218부가 회수되어 52.6%의 회수율을 보인 바 있으며, 전교인 수 대비 25.4%의 응답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당회 보고는 설문조사의 실무와 분석을 담당한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산하 미디어 태스크포스팀에서 진행했으며, 설문조사의 목적과 진행 과정, 회수 결과와 함께 기초적인 결과분석 내용을 담

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교인 기본 사항 가운데에는 교인의 62%가 주일에 자가용으로 교회에 오며, 응답자의 86%가 배우자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교인들의 22%가 가족과 인척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가 2부 예배에 참석하며, 34%가 매주 국수를 먹고, 70%가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한편 겨자씨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이 43%, 사역을 하지 않는 교인이 50%에 이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83%, 성경을 혼자서 읽는다는 응답자가 50%로 분석되었다. 교회 제도에 대해서, 응답자의 34%가 사회봉사·구제·선교에 힘쓰는 것을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밝혔다. 63%의 교인은 교회 창립 정신과 특성에 맞는 사역 분야를 선택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석되었다. 특히 청소년 사역(63%)에 핵심적인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창립 정신 가운데 50:50의 원칙에 공감하는 교인의 비율이 42%로 가장 높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는 75%가 사역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 특집 5~20면

함즐함울

전교인 가을 운동회 10월 3일 개최

전교인 가을 운동회가 10월 3일 정신학원 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교인 운동회는 교인들 및 교회의 이웃과 친교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주님의교회 사상 첫 번째 전교인 운동회로 기록될 예정이다. 이날 경기는 기본적으로 교구별로 진행되며, 9시 20분에 교구모임을 갖고 9시 30분에 개회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다. 오전에 1부, 오후에 2부가

진행되고, 오후 4시에 수요일예배를 드린 후 해산하게 된다.

경기 종목은 투호/고리던지기, 풍선기둥 세우기, 줄넘기, 폐널티킥, 고무신 멀리던지기, 족구, 큰공 굴리기, 기차릴레이, 오자미 넣기 퍼구, 등으로 구성되어, 주로 교구별 단체 경기로 이루어지며, 종목별 상품은 우승팀의 이름으로 섬김과 나눔에 기증될 예정이다.

함즐함울

시간	내 용
08:30 09:20	준비(본부, 경각·심판팀, 교구 등)
09:20 09:30	교구 모임
09:30 10:00	개회 예배 전교인 체조 경기 진행-수칙 안내
10:00 12:30	운동회 (1부)
12:30 13:30	식 사
13:30 15:30	운동회 (2부)
15:30 15:50	성적 발표 + 시상 / 폐회식
16:00 16:30	수요일 예배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 103회 총회가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리신광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의 보도에 의하면, ‘영적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히 13:12~16, 합 3:2)를 주제로 열린 제103회 총회는 3박 4일간의 회무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영적부흥을 통해 민족의 동반자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서울동노회를 제외한 전국 66개 노회 총대 1,3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

린 이번 총회에서는 제102회기 부총회장 림형석 목사가 제103회기 총회장으로 자동승계했으며, 목사 부총회장은 김태영 목사(부산 동노회 백양로교회)가, 장로 부총회장은 차주욱 장로(충주노회 명락교회)가 당선되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세습 금지’법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며 격론을 벌인 끝에 총회가 제정한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이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과 방송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 ‘세습 금지’법과 관련한 제102회기 헌법해석과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 역할에 관한 규칙부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어 목회지 대물림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을 부결시키고, “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천위원회가 공천한 총회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한 뒤, 새로 조직하는 등 목회지 대



물림과 관련된 법 정신을 공고히 했다. 또한 재판국 보고를 두고 폐회 직전까지 논란을 벌였다. **함글함글**

정말 솔직하게 쓴 전교인 운동회 사역 간증

어쩌다? 운동회~!

문제) 우리의 가을 운동회를 홍보하는 포스터, 동영상, 주보 간지, 현수막, 그리고 이 글은 ‘과대광고’ 일까요, ‘공익광고’ 일까요? (이 글을 다 ~ 읽으셔야 답을 알게 됩니다.^^)

“아니, 두 달도 안 남겨 놓고 전교인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홍보하라뇨?” “난 반델세!” 이게 제 첫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아무리 봐도 준비 시간도 부족하고, 이미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통일 선교 바자회도 코앞이라 권사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죄송스럽고. 예수님도 안 오실 텐데 오병이어 기적도 없이 이 큰 규모의 식사준비를 어쩌한다는 건지... 안 해야 할 이유가 백만 가지였습니다. “아뇨~ 잘 준비해서 그냥 내년에 하면 안돼요?” 준비 위원장인 서기장로님과 기획팀장 정원영 집사님께 수차례 읊소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걱정 말라고... “나참, 그럼 홍보 영상이나 포스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지 왜 저를 시키시나요?”(물론 이건 속마음이죠^^) 그렇게 등 떠밀리며 시작된 준비. 그런데 우리 교회 참 이상해요.(제 생각에) 무리하다 여겨지는 일들도 사역으로 시작되면 어쩔 그리들 별 말 없이 열심히 하시는지, 경기팀, 심판팀, 교구팀, 사진팀, 주차팀, 응급실, 사무국..., 일사분란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있고, 홍보를 맡은 저만 홍보가 1도 안 되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죠. 배신자들..., 궁시령궁시령 투덜투덜...

심지어 당일엔 누가 그렇게 오겠냐는 예상을 뒤엎고 교구별 인원 파악을 해보니 목표 인원인 1,000명이 곧 되겠다는 집계 결과! 흠..., 우리 하나님은 제 홍보영상 콘티를 손수 짜주시진 않으나 저를 제외한 각 팀장님의 모습으로, 교구 성도의 모습으로 <가을 운동회>라는 집을 기초부터 지붕까지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더라 말이지요.

그래서 겨우겨우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포스터의 그림처럼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겨자씨에 상관없이, 장애를 뛰어 넘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려면 어쩌해야할지... 그리고 우리의 웃음과 행복이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머리를 맞대서 나온 것이 “공부해서 남 주고 운동해서 남 주자!”

건강한 스포츠는 아름답고 공정한 경쟁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 경쟁의 끝은 물질적 상품이 아닌 자부심과 감사가 돼야 한다는 것.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풍알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우리 민족의 전통을 잠시 거슬러 우승 교구 선수들에게 잘게 나누어질 콩(상품)을 모아~모아~ 큰(!) 콩으로 만들기로. 우승한 교구의 상품은 구태의연한 처음 기획, 교회 이름 박힌 세수수건이 아닌 10Kg의 쌀 50포대로 변화되어 ‘섬김과 나눔’에 기부될 것입니다. 이웃은 배가

든든해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가지게 되나 맘이 든든해지는 기적이지요. 이번 운동회 또 하나의 서프라이즈! 우리의 흥을 한껏 돋우어 줄 “치어리더 팀의 등장”입니다. 비밀 선물을 제가 폭로하는 이유는 그 날 너무나 훌륭한 치어리더 팀의 공연을 보시고 (제가 늘 의심하듯 ㅎㅎ) ‘사례비가 얼마나 나갔을까, 교회의 갑질로 후원 아이들을 강제 동원한 건 아닐까?’ 등등 많은 의구심을 가지실까 해서요. ^^

‘아름다운 꿈 지역아동센터’는 송파구에 있는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을 돕는 복지 시설입니다. 주님의교회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축구봉사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 아이들의 많은 활동 중 치어리더 팀은 2010년 결성되어 지금까지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수차례 금메달을 따내고 경찰청, 사회복지 협회, 양로원 등 많은 단체에 무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재능을 환원하는 멋진 아이들인거죠.

그 아이들이 우리 운동회 소식을 듣고 무료 공연을 해주겠다고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운동회 준비를 하면서 가장 감동 받은 일이 있다면 전 이걸 꼭겠습니다. 투덜거리고 반대하며 시작한 운동회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러 사흘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간,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아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전 교인 모두 모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어찌고저찌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계실 것이며, 겨자씨에 속하지 않아서, 혹은 등록을 안 해서 여전히 교회가 낯선 분도 계시겠지요. 나이 들어서, 아기가 어려서, 몸이 불편해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저 빈손으로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놓고 쉬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운동회에 오나 안 오나 우리 인생에, 신앙에, 인간관계에 뭐 그리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삶에 보약한 찻이 될 추억과 즐거움과 따뜻함을 (함께) 먹고 싶어 길고 두서없는 편지를 띄웁니다. 짧은 가을 한 허리를 버혀내어 추억 속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인생의 골목길에 설 때마다 그 온기를 구워구워 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가을 전교인 운동회 홍보팀장 김유경 올림

PS. 아, 문제 정답 : 운동회에 여러분이 불참하시면 ‘과대광고’, 참석하시면 ‘공익광고’가 됩니다.

이임 인사

다음 마을로 떠나며

먼저 있던 마을을 떠나 주님의교회라는 마을로 온 지도 만 6년이 다 되어갑니다. 만 6년이라는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막힘이 없음을 알기에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마을로 가고자 합니다. 이 마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숭한 은혜와 성도들의 따스한 마음, 그 손길들이 있었기에, 감사함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와 그 마음, 그 손길들이 있음을 알기에, 고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마을로 떠날 수 있습니다.

저는 삶을 떠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떠남은 새로운 만남을 근거로 하기엔,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바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로 승화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كل랜드주님의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에 저 같이 부족한 자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직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애쓰고자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가웠고, 섬길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최방은 목사

* 지난 2013년 1월 부임하여, 부목사로 주님의교회를 섬겼던 최방은 목사는 2018년 9월 뉴질랜드 오كل랜드주님의교회로 청빙을 받았습니 다.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새 임지에서 복된 사역을 기원합니다.



사역 보고

미시오데이찬양대, 여주소망교도소 위문



찬양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미시오데이 찬양대가 2018년 신망애 요양원, 보훈병원에 이어 세 번째 선교사역으로 9월 9일 2시에 여주소망교도소를 방문하여 찬양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총 49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감자와 근무자 300여명과 함께 이일묵 안수집사의 사회, 김익훈 장로의 대표기도, 김대환 목사의 예배소서 4장 13절~16절 말씀과 건강한 습관과 건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미시오데이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10곡의 성가곡을 혼성 합창, 여성합창, 영미시오 중창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눌 주님의 떡으로 빵 350개와 간식을 준비하여 나

눠드렸습니다.

참고로 여주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부터 국내 최초로 국영이 아닌 민간단체(아가페재단-개신기독교)가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여 선교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도소운영이 다른 점은 수감자들의 호칭을 수번호로 하지 않고 이름으로 호명하며 식사도 식당에서 교도관등 직원들과 함께 어울려 하는 등 수감자들의 인권과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여 운영함으로써 범죄의 재발생율이 전국에서 최고 낮은 7%대(다른 교도소는 25%대)라고 합니다. 주님의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관심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일묵 안수집사 / 미시오찬양대

청년부 소식

청년부, 전체 행사를 통해 교류의 장 가져

지난 9월 16일 청년부는 1부(29세 미만), 2부(29세 이상), 그리고 청년부를 섬기는 부장단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의 이름은 “해피 투게더”로, 행사 제목 그대로 행복하게 모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년부 자체적으로 꾸린 16명의 행사준비단들이 5주에 걸쳐 준비했다. “해피 투게더” 행사는 2018년 초반부터 청년부 전체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이뤄낸 결과이기에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행사는 예배 후 총 7가지 컨셉의 소모임을 구성해 청년부들이 원하는 주제를 골라 흠어지게 계획했는데, 그 주제는 향기, 맛집, 커피, 보드게임, 연애/결혼, 여행, 그리고 어떤 주제도 선택하기 힘든 청년들을 위한 ‘아무거나’라는 주제까지 선보였다. 모임 안에서는 연애/결혼을 선택한 친구들은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향기를 선택한 청년들은 그 날 행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기념품이 될 수 있는 디퓨저를 직접 제작하는



등 주제와 관련된 체험이나 나눔을 진행하며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했다.

행사 후에는 부장단에서 100명 이상의 바베큐 파티를 준비해주셨고, 그로 인해 교류의 장은 세대간의 어색함을 떨쳐내고 더욱 풍성할 수 있었다.

청년부는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를



따뜻하게 꾸리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과, 교회가 교회답고 그 교회 안의 공동체 또한 교회다워지는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한다는 그들의 각오가 전해졌던 행사였다.

이현주 / 청년부

2018 전교인 설문조사 보고서

주님의교회에서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9일에서 9월 2일까지 전교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3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오면서 형성된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것을 파악하여, 향후 목회와 사역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3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기획하여, 산하 조직인 미디어태스크포스팀에 의해 실무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시행 결과가 종합되어 지난 9월 16일 당회에 보고됨으로써, 1차적인 마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함글함울>에서는 당회에 보고된 내용의 요약과, 문항별 응답률을 기록한 설문지를 이번 호에 모두 수록하여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와 함께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목적과 과정

전교인 설문조사는 지난 3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으며 형성된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것을 파악하여 목회와 사역, 제도 개선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행되었습니다. 보편적인 설문조사의 과정은 문항의 작성 - 배포와 회수 - 코딩과 입력 - 통계치 추출 - 결과의 보정 - 분석과 해석 - 반영과 활용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번 보고는 자료의 코딩이 완료되어 생성된 전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항별 응답자 대비 응답률만을 단순 적용한 1차 분석내용입니다. 좀더 심층적인 분석과 해석은 앞으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행 결과

설문지의 문항은 총 106 문항으로, 교인 기본사항에 대하여 21문항, 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하여 29문항, 신앙 생활에 대하여 21문항, 교회의 여러 제도와 시스템에 대하여 34문항이 배치되어, 공동체 구성원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설문지는 4,500매가 인쇄되어, 8월 19일과 26일, 9월 2일에 배포, 회수한 결과 총 4,217부 배포, 2,218부 회수로 회수율 52.6%로 집계되었습니다. 비등록교인도 110명이 참여했으며, 7월 31일 기준 교적부상 등록교인 수인 8,74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25.4%의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신뢰수준은 95%, 설문조사의 최대허용오차는 $\pm 2.5\%$ 정도입니다.

분석과 결과의 공유

설문조사의 시행 과정, 결과 및 가장 기본적이며 개괄적인 분석 내용은 창립3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9월 16일 당회에 보고되었습니다. 목회 및 정책 관련 통계가 필요할 경우 목적에 따라 응답자별 문항과 인접/유사 문항의 내용을 연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도출하여 목회와 사역, 제도 개선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문지 원본은 훼손과 멸실 방지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10년 이상 보존 자료로 취급하며, 설문지 원본과 코딩 데이터 파일 원본은 기밀 기록 자료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함글함울>에서는 이후 다양하고 흥미로운 분석내용이 나오는 대로 교회 공동체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함글함울

창립 30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특집

주님의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삽니다

교인의 기본사항은 응답자의 기본적인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적부상 교인의 연령별, 성별 구성비와 응답자의 구성비에 차이가 있으나, 그럼에도 많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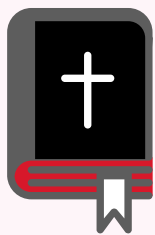
주님의교회 교인의 대부분이 강남, 송파구에 거주하며, 부부가 함께 출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교회 등록 연수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다는 통계를 보면 다른 교회에서 옮겨 오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본 통계들은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다른 문항을 분석할 때 기본 정보로 활용될 것입니다.



62%

자가용으로 교회에 온다

강남, 송파에 거주하는 교인이 64%나 됩니다. 또한 자가용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62% 이나 됩니다. 대중교통은 27%가 이용합니다.



76%

21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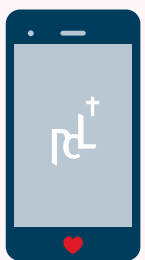
31년 이상 되신 분들이 54%, 11년~20년인 분들도 15%에 이릅니다. 세례 받은 지 21년이 넘는 분들도 72%나 됩니다.



29%

1년 이내, 5년 이상인 미등록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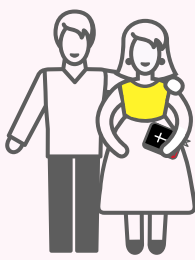
응답자의 5%, 110명이 미등록교인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1년 이내인 분들과 5년 이상인 분들이 각각 29%, 합치면 60% 가까이 됩니다.



84%

휴대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스마트폰은 새로운 정보소통의 방법입니다. 교인의 32%가 정보검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52%는 은행과 상거래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86%

부부가 함께 교회에 다닌다

응답자의 90%가 기혼자이며 86%가 배우자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67%는 맞벌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2%

가족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자녀, 가족, 친척간의 관계에서 22%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8%가 건강 문제를, 17%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특집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어울립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은 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예배, 모임, 사역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살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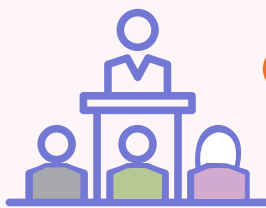
주님의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에 집중적으로 참석하시며,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응답자의 34%가 3시간 이상 교회에 머무르면서 친교와 사역을 하시고, 34%가 주님의교회 명물인 국수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를 제외한 수요일 예배, 금요일 기도회, 새벽 예배에 대한 참석률이 저조한 것은 뜻밖입니다. 1개 이상의 사역을 하는 분들은 약 50%이며, 3%는 4개 이상 사역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40%

주일 2부 예배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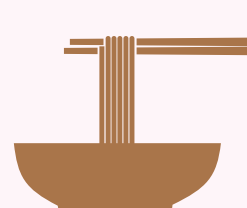
교인 40%가 2부, 33%가 3부 예배에 참석하여, 이 두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73%에 이릅니다. 56%가 대예배실 1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88%

주일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한편 주일예배에 월 1회 정도 불참이 9%, 2회 이상 불참하는 교인이 3%나 됩니다. 주된 불참 이유는 경조사 참석과 여행 등입니다.



34%

매주 국수를 먹는다

응답자의 43%가 예배 후에 바로 귀가하지만, 23%는 2시간 정도, 34%는 3시간 이상 교회에 머물며 사역과 친교를 합니다.



83%

수요일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주일예배 외에 다른 예배에 대한 참석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수요일예배에는 83%, 금요일예배에는 70%, 새벽예배에는 67%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43%

겨자씨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43%가 겨자씨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데, 여러 일로 바쁜 경우가 60%이지만, 겨자씨가 안 모이거나 모르는 경우도 22%입니다.



50%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다

사역이나 봉사를 교인의 의무이며 사랑의 실천으로 보는 분이 69%이지만, 사역을 안 하는 분이 50%입니다. 4개 이상 하는 분은 3%입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특집

신앙생활은 이렇게 합니다

신앙에 대한 문항들은 교회 안팎에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신앙에 대하여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삶의 전부이자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일상 생활에서 확실한 지침으로 보는 분도 많았습니다만, 혼자서 성경을 읽은 비율이 그보다 적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웠음을 보여줍니다. 대략 절반 정도의 분들이 겨자씨 모임을 통해 신앙과 영적 성장에 도움을 받으며,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사역 활동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함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신앙이 삶의 전부인 분이 42%, 신앙에 따라 사회생활을 하는 분이 34%이며, 22%는 사회 생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했다

응답자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한 분이 83%나 되며, 47%가 그 은혜를 다른 교인과 나누거나 간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는다

75%가 성경을 생활의 지침으로 여기지만, 혼자서도 성경을 읽는 분은 응답자의 50%에 그치며, 그렇지 않은 분도 21%에 이릅니다.



겨자씨 모임, 영적 성장 도움 된다

겨자씨가 영적 성장에 도움 된다는 분이 50%, 아니라는 분이 14%였습니다. 51%는 개인적 문제를 겨자씨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역이 신앙 성장에 도움 된다

응답자의 71%가 사역을 통해 믿음 성장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분도 5%나 되었습니다.



소통의 통로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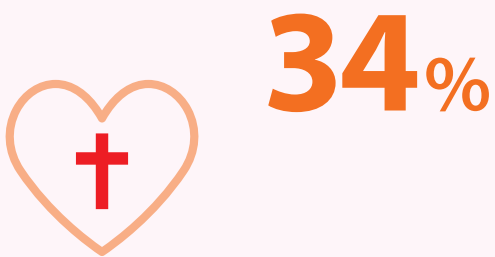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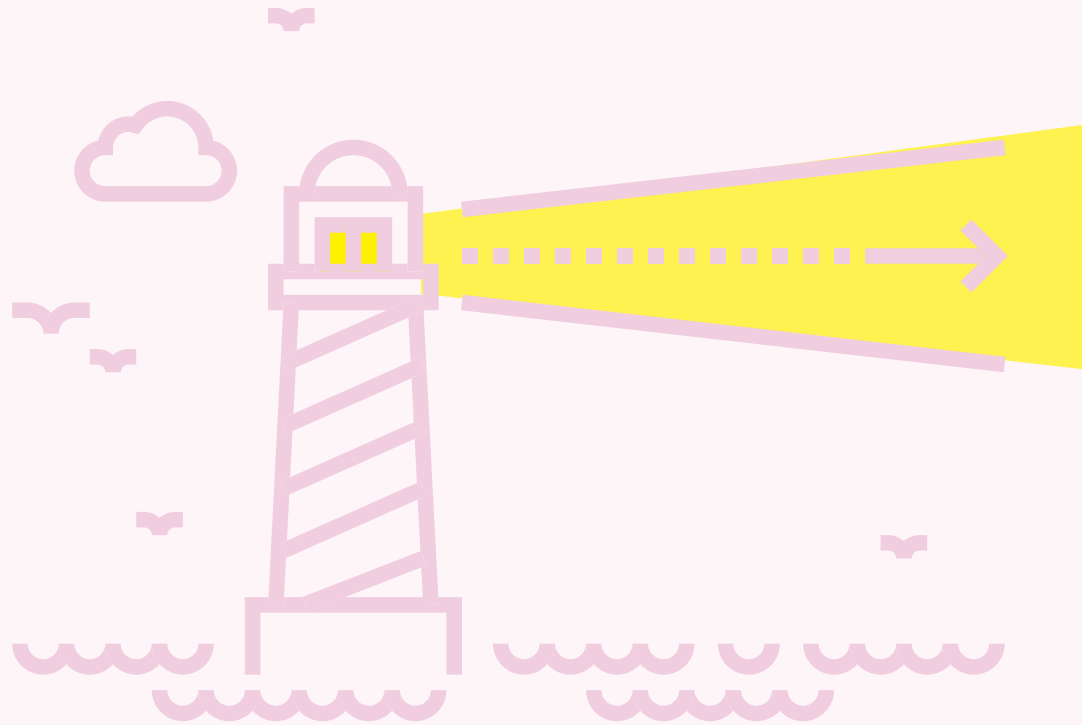
교회에 신앙 속에서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분이 43%이지만, 지도자와 성도간 소통의 통로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 분도 41%에 이릅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특집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문항들은 교회 창립정신의 실천부터 사역의 여러 국면들, 다양한 교회 내 정보 소통 방식, 새가족에 대한 안내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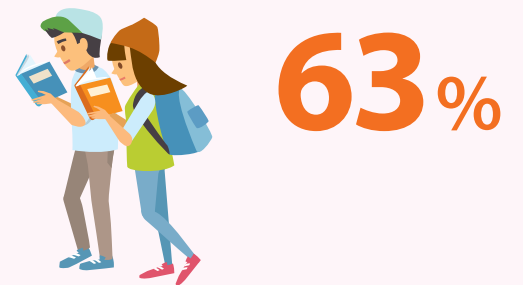
주님의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사회봉사·구제·선교에 힘쓰는 것을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창립 정신 가운데 가장 공감하는 순서는 50:50, 임기제, 건물 무소유, 무기명 헌금이고, 그 이유는 교회의 순수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또한 50:50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역의 선택과 집중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목적에 공감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좀더 적극적으로, 또한 5년이나 10년 주기로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사회봉사·구제·선교가 큰 장점
응답자의 34%가 주님의교회의 가장 큰 장점으로 사회봉사·구제·선교를 꼽았고, 거룩한 예배, 효율적 체계를 그 다음으로 보았습니다.



50:50이 가장 공감하는 창립정신
재정의 5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는 정신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고, 임기제가 26%, 건물 무소유가 17%, 무기명 헌금이 14%이었습니다.



사역의 선택과 집중, 청소년 중심
창립정신에 비추어 사역분야를 선택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63%, 청소년 사역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자는 의견도 63%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겨자씨에 알림
어려움이 있을 때 겨자씨 인도자나 권찰에게 알리는 분들이 33%, 그외에 교구목사, 중보기도청, 교우에게 알리는 분들이 20% 정도였습니다.



50:50 실천, 사역 선택과 집중
재정의 50%를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한다는 창립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역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75%가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는 좋은 의견수렴 수단
설문조사를 교인의 의견을 교회 정책에 반영하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55%, 적극적이며 주기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4%였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전교인 설문조사 특집

I. 교인 기본사항에 대하여

※ 각 문항 아래에는 문항별 응답률을 밝혔습니다. 반올림 단수처리로 인해 합계가 99%나 101%로 나오는 경우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I-1] 귀하의 연령은 작성일 현재, 만 나이 기준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19~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60세 ⑤ 61~65세 ⑥ 66~75세 ⑦ 76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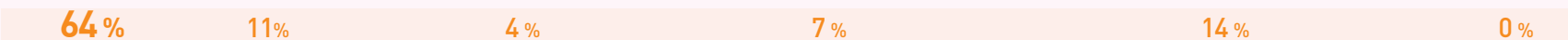
[I-2] 귀하의 성별을 말씀해 주십시오. ()

- ① 여 ②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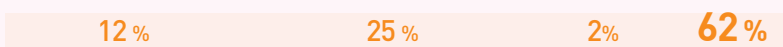
[I-3] 귀하가 실제로 거주하시는 곳을 말씀해 주십시오. ()

- ① 송파구, 강남구 ② 서초구, 광진구, 강동구 ③ 용산구, 영등포구, 성동구, 마포구 ④ 경기도 분당, 죽전, 용인, 평촌, 과천 ⑤ 서울의 나머지 구,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다른 지역 ⑥ 해외 체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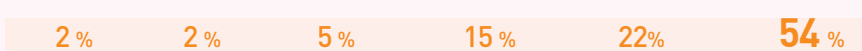
[I-4] 귀하가 보통 주일 교회에 오기 위해 택하는 교통편은 무엇인지요? ()

- ① 도보(또는 자전거) ②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③ 택시 ④ 자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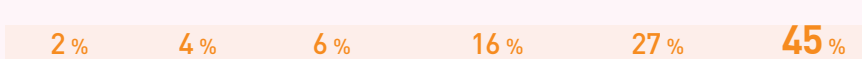
[I-5] 작성일 기준 귀하의 신앙생활 기간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

- ① 1~3년 ② 4~6년 ③ 7~10년 ④ 11~20년 ⑤ 21~30년 ⑥ 31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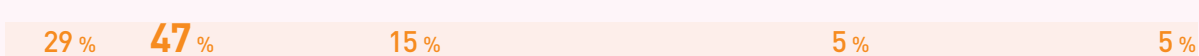
[I-6] 세례를 받으신 지 얼마나 되시는지요? ()

- ① 1~3년 ② 4~6년 ③ 7~10년 ④ 11~20년 ⑤ 21~30년 ⑥ 31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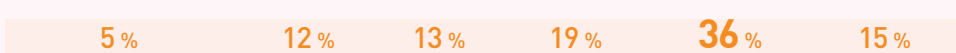
[I-7] 주님의교회에서 귀하의 현재 직분은 무엇인가요?

- ① 성도 ② 서리집사 ③ 향존직(장로, 권사, 안수집사) ④ 은퇴 향존직(은퇴장로, 은퇴권사, 은퇴안수집사) 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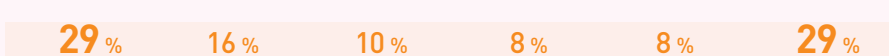
[I-8] 주님의교회에 등록하신 후 기간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

- ① 현재 미등록 상태 ② 1~3년 ③ 4~6년 ④ 7~10년 ⑤ 11~20년 ⑥ 21~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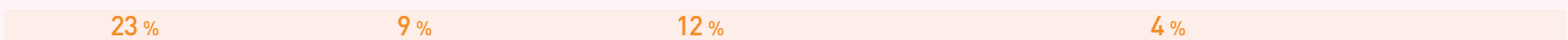
[I-9] 현재 미등록인 상태로 주님의교회를 다니고 있는 경우, 주님의교회에 출석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

- ① 1년 이내 ② 2년 이내 ③ 3년 이내 ④ 4년 이내 ⑤ 5년 이내 ⑥ 5년 이상



[I-10] 1년 이상 미등록 상태로 주님의교회를 다니신 경우, 굳이 등록을 하지 않으신 까닭을 적어 주십시오. ()

- ① 내 교회라는 확신 부족 ② 다른 가족이 교회에 가지 않아서 ③ 현 거주지가 임시여서 ④ (직장, 학교, 연중 장기 국외거주 등의 이유로) 주일마다 교회에 가기 힘든 상황이어서



- ⑤ 기타 ()



[I-11] 귀하는 휴대전화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요? ()

① 주로 전화통화의 용도로만 사용 ② 통화뿐 아니라 메시지나 카톡 등 SNS도 사용 ③ 통화와 메시지뿐 아니라 정보검색을 할 때에도 사용 ④ 통화, 메시지, 정보검색, 은행 / 상거래 이용

4 %

12 %

32 %

52 %

[I-12] 귀하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

① 안함 ② 문서작성, 이메일 ③ 정보검색 포함 ④ 은행 / 상거래 포함 ⑤ 공공서비스(공문서 발급) 포함

9 %

17 %

34 %

20 %

20 %

[I-13] 귀하는 결혼을 하셨는지요? ()

① 미혼 ② 기혼 ③ 독신

8 %

90 %

2 %

[I-14] 기혼의 경우, 배우자는 주님의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요? ()

① 출석 ② 미출석

86 %

14 %

[I-15] 배우자가 주님의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다른 교회에 출석 ② 일시적으로 미출석(예, 몸이 불편, 주일근무 등) ③ 교회를 다니지 않음

24 %

18 %

58 %

[I-16] 부부는 모두 직업이 있는지요? ()

① 맞벌이한다 ② 맞벌이하지 않는다

33 %

67 %

[I-17]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들은 주님의교회에 출석하는지요? ()

① 모두 출석 ② 일부만 출석 ③ 모두 출석하지 않음

44 %

24 %

32 %

[I-18]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님의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다른 교회에 출석 ② 일시적으로 미출석(예, 유학, 재수, 주일근무 등) ③ 교회를 다니지 않음

40 %

29 %

32 %

[I-19] 귀하의 직업을 아래 분류에 따라 구분한다면 어디에 해당하게 되는지요? ()

① 일반 기업에 재직 ②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재직 ③ 교육자 ④ 자영업이나 개인회사 운영 ⑤ 프리랜서 ⑥ 주부 ⑦ 학생 ⑧ 기타()

17 %

7 %

10 %

16 %

5 %

31 %

4 %

10 %

[I-20] 귀하의 직장이나 학교 등 소속된 곳은 어디에 있는지요? ()

① 서울 ② 비서울

81 %

19 %

[I-21] 현재 귀하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사회생활 속의 여러 경쟁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③ 건강에서 오는 어려움 ④ (직장, 학교, 교회 등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17 %

14 %

18 %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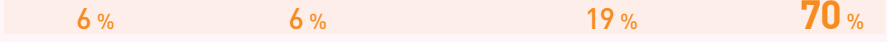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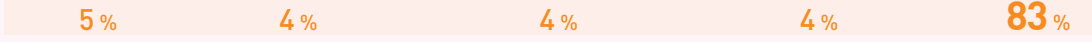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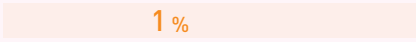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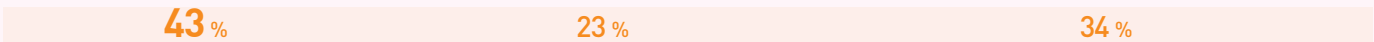
⑤ 자녀, 가족 및 친척 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⑥ 신앙적 어려움 ⑦ 기타()

22 %

8 %

12 %

※ 항상 1개의 답만 선택하시고, 귀하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면 답을 하지 말고 건너뛰세요.



[II-12] 귀하가 새벽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거의 매일 참석 ② 주 2회 이상 참석 ③ 주 1회 정도 참석 ④ 특별 절기 때만 참석 ⑤ 거의 불참

7 % 3 % 2 % 21 % 67 %

[II-13] 새벽예배에 불참하는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직장, 학업 문제 ② 해외 또는 지방 출장 ③ 다른 일과 중복 ④ 불편한 교통 ⑤ 몸이 피곤 ⑥ 기타

17 % 1 % 6 % 16 % 34 % 27 %

[II-14] 귀하는 구역모임(겨자씨모임)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 ① 예배와 말씀 공부 및 기도 ② 친교와 친목 ③ 전도와 선교 ④ 섬김과 봉사 ⑤ 기타()

44 % 50 % 1 % 3 % 2 %

[II-15] 귀하가 속한 겨자씨는 한 달에 몇 번 모이십니까? ()

- ① 매주 ② 한 달에 2~3번 ③ 한 달에 1~2번 ④ 불규칙하게 모임 ⑤ 모이지 않음

30 % 19 % 14 % 9 % 28 %

[II-16] 귀하가 겨자씨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

- ① 모임 때 매번 참석 ② 한 번 정도 불참 ③ 두 번 정도 불참 ④ 매번 불참

41 % 10 % 5 % 43 %

[II-17] 겨자씨모임에 불참하는 경우,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직장이나 학업이 바빠서 ② 각종 일과 중복 ③ 자신이 속한 겨자씨 자체가 안 모임 ④ 나갈 수 있는 겨자씨가 없거나 소속 겨자씨를 모름 ⑤ 참석의 필요성을 못 느낌

20 % 40 % 10 % 12 % 17 %

[II-18] 귀하가 겨자씨모임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

- ① 겨자씨 인도자 ② 권찰 ③ 겨자씨 식구

13 % 6 % 81 %

[II-19] 귀하가 속한 겨자씨가 모이는 장소는 어디인지요? ()

- ① 겨자씨 인도자나 어느 식구 집에서 ② 겨자씨 식구의 집을 돌아가며 ③ 교회 ④ 기타 장소(예, 식당)

10 % 31 % 40 % 19 %

[II-20] 귀하는 겨자씨모임의 일원으로 하는 교회의 주방봉사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

- ① 연중 1회 ② 연중 2회 ③ 전혀 하지 않음

15 % 40 % 45 %

[II-21] 귀하가 생각하는 교회에서의 사역 또는 봉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 ① 교인으로서 의무 ② 이웃사랑의 실천 기회 ③ 교회의 운영에 기여 ④ 믿음 훈련의 기회 ⑤ 은사 개발을 위해

33 % 36 % 8 % 22 % 1 %

[II-22] 귀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사역 종류에 따라 다르다 ② 대부분 전문성이 필요하다 ③ 전문성이 없어도 배워가면서 하면 된다 ④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불필요하다 ⑤ 교회 사역은 전문성과 전혀 상관이 없다

53 % 9 % 30 % 4 % 4 %

[II-23] 귀하는 현재 교회에서 몇 개의 사역부서에 속하여 활동하고 계십니까? ()

- ① 1개 ② 2~3개 ③ 4개 이상 ④ 없음

30 % 18 % 3 % 50 %

[II-24] 귀하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주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 ① 해당 사역팀의 권유로 ② 목회자의 권유로 ③ 겨자씨모임 식구의 권유로 ④ 사역박람회를 통해서 ⑤ 내가 찾아서 ⑥ 어쩌다 보니

23 %

5 %

10 %

6 %

50 %

6 %

[II-25] 귀하는 어떤 사역부서에 가장 오래 참여하고 계십니까? ()

- ① 목양 분야의 예배, 소그룹, 젊은이, 미디어 (안내, 성찬, 행정, 출판 등) 9 %
 ② 목양 분야의 음악 (찬양대 등) 26 %
 ③ 목양 분야의 양육, 교육 분야의 교사, 선교 분야의 장애인복지 (새가족 양육, 주일학교, 사랑나무 등) 24 %
 ④ 목양 분야의 봉사 (주방, 주차, 도서, 환경 등) 13 %
 ⑤ 선교 분야의 국내선교, 통일선교, 해외선교, 전문선교 등 9 %
 ⑥ 전문부설기관 (전문위원회, 섬김과나눔, 청소년사역원 등) 8 %
 ⑦ 기타 () 10 %

[II-26] 귀하는 양육프로그램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

- ① 1년에 4 프로그램 이상 ② 1년에 2 프로그램 정도 ③ 2년에 1 프로그램 정도 ④ 참여하지 않음

1 %

14 %

17 %

68 %

[II-27] 귀하는 어떤 동기로 양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십니까? ()

- ① 은혜를 받기 위하여 ② 성경 지식의 향상 ③ 교양을 쌓기 위하여 ④ 친교 / 친목의 목적

37 %

56 %

3 %

4 %

[II-28] 귀하는 주님의교회에서 십일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

- ① 매달 규칙적으로 한다 ② 한두 번 빠질 때도 있다 ③ 드문 드문 한다 ④ 거의 하지 못한다 ⑤ 인연이 있는 다른 교회에 하고 있다

39 %

8 %

12 %

35 %

5 %

[II-29] 주님의교회가 귀하에게 주는 의미 중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차례대로 3개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집과 가까이 있는 교회 ② 주님이 인도하신 교회 ③ 나의 교회 ④ 내 친척, 가족, 친구 등을 대신할 교회

11 %

68 %

14 %

1 %

- ⑤ 나의 노후와 죽음까지 생각해주시는 교회 ⑥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2 %

3 %

III. 신앙에 대하여

※ 항상 1개의 답만 선택하시고, 귀하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면 답을 하지 말고 건너뛰세요.

[III-1] 귀하에게 신앙생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 ① 내 삶의 전부이고,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42 %
- ② 내 삶의 기초이므로 이에 따라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34 %
- ③ 중요하지만 사회생활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2 %
- ④ 신앙과 사회생활은 별개이다 1 %
- ⑤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2 %

[III-2] 귀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41 %
- ② 그렇다 42 %
- ③ 보통이다 13 %
- ④ 그렇지 않다 4 %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 %

[III-3] 귀하는 귀하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교인과 나누거나 간증할 기회가 있습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11 %
- ② 그렇다 36 %
- ③ 보통이다 28 %
- ④ 그렇지 않다 19 %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

[III-4] 귀하는 성경 말씀이 일상생활에서 확실한 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30 %
- ② 그렇다 45 %
- ③ 보통이다 21 %
- ④ 그렇지 않다 3 %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 %

[III-5] 귀하는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19 %
- ② 그렇다 31 %
- ③ 보통이다 29 %
- ④ 그렇지 않다 16 %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

[III-6] 귀하는 준비된 상태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9 %
- ② 그렇다 34 %
- ③ 보통이다 40 %
- ④ 그렇지 않다 15 %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

[III-7] 귀하는 예배 중에 방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1 %
- ② 그렇다 18 %
- ③ 보통이다 19 %
- ④ 그렇지 않다 50 %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2 %

[III-8] 우리 교회의 예배는 처음 나온 사람들도 쉽게 따라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13 %
- ② 그렇다 50 %
- ③ 보통이다 26 %
- ④ 그렇지 않다 9 %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 %

[III-9] 귀하가 속한 소그룹(겨자씨모임)은 귀하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11 %
- ② 그렇다 39 %
- ③ 보통이다 35 %
- ④ 그렇지 않다 10 %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

[III-10] 귀하는 겨자씨모임에서 개인적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11 %
- ② 그렇다 40 %
- ③ 보통이다 29 %
- ④ 그렇지 않다 15 %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

[III-11] 귀하가 속한 겨자씨모임에서는 새 가족도 쉽게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 44 % 31 % 14 % 3 %

[III-12] 귀하가 속한 겨자씨모임의 인도자는 교회로부터 신앙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0 % 51 % 20 % 7 % 2 %

[III-13] 귀하는 우리 교회 외의 찬양 예배에도 참석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불규칙하게 몇 번 있다 ③ 규칙적으로 자주 있다

59 % 37 % 4 %

[III-14] 위 문항에서 참석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이나 학교의 신우회 모임이므로 ②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③ 부족한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④ 기타

11 % 5 % 46 % 38 %

[III-15] 귀하는 우리 교회 외의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불규칙하게 몇 번 있다 ③ 규칙적으로 자주 있다

71 % 22 % 6 %

[III-16] 위 문항에서 참석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이나 학교의 신우회 모임이므로 ②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③ 부족한 성경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④ 기타

19 % 5 % 54 % 22 %

[III-17] 귀하는 우리 교회 외의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불규칙하게 몇 번 있다 ③ 규칙적으로 자주 있다

72 % 22 % 6 %

[III-18] 위 문항에서 참석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이나 학교의 신우회 모임이므로 ②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③ 부족한 기도를 채우기 위해서 ④ 기타

23 % 7 % 44 % 26 %

[III-19] 귀하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귀하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1 % 50 % 24 % 4 % 1 %

[III-20] 우리 교회에는 신앙 속에서 귀하를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 34 % 27 % 24 % 6 %

[III-21] 우리 교회는 지도자와 성도 간에 소통의 장과 통로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 17 % 40 % 32 % 9 %

IV. 교회의 여러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하여

※ 항상 1개의 답만 선택하시고, 귀하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면 답을 하지 말고 건너뛰세요.

[IV-1] 귀하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강한 리더십 ② 은사 중심의 사역 ③ 성령 충만 ④ 효율적 체계 ⑤ 거룩한 예배 ⑥ 소그룹(거자씨모임) 중심 ⑦ 사랑이 넘치는 친교
- 1 % 5 % 5 % 13 % 24 % 2 % 2 %
- ⑧ 사회봉사 · 구제 · 선교에 힘씀 ⑨ 특별한 장점을 못 찾겠음 ⑩ 기타 ()
- 34 % 9 % 7 %

[IV-2] 귀하가 주님의교회의 여러 제도(창립정신) 중 가장 호감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요? ()

- ① 재정의 5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 ② 무기명 헌금 ③ 건물 무소유 ④ 목사 / 중직자의 임기제
- 42 % 14 % 17 % 26 %

[IV-3] 위 보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다른 교회와 달라서 ② 교회의 순수함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③ 교회가 나빠질 것 같지 않아서 ④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문제가 많아서
- 15 % 42 % 12 % 8 %
- ⑤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서
- 23 %

[IV-4] 귀하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귀하의 은사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22 % 46 % 28 % 3 % 1 %

[IV-5] 우리 교회는 사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에 열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5 % 30 % 47 % 15 % 3 %

[IV-6]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2 % 18 % 50 % 26 % 3 %

[IV-7] 우리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아쉽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선교와 구제 부문 ② 예배부문 ③ 교육부문 ④ 친교부문 ⑤ 행정과 제도 부문
- 11 % 12 % 25 % 36 % 16 %

[IV-8] 우리 교회는 사역을 위한 계획과 조직을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5 % 37 % 45 % 11 % 2 %

[IV-9]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에는 많은 사역부서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교회 창립 정신에 비추어,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타 교회 사례를 참고하여 사역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5 %
- ② 교회 규모에 비추어 타당해 보이므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15 %
- ③ 교회의 창립 정신과 특성에 맞는 사역 분야를 선택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63 %
- ④ 사역부서에 대한 인위적인 기획이나 조정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16 %

[IV-10] 우리 교회의 사역부서 리더들은 본인이 맡은 사역을 추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 49 % 37 % 7 % 1 %

[IV-11] 우리 교회는 귀하가 맡고 있는 사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 31 % 42 % 22 % 3 %

[IV-12]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교회 창립 정신의 근간으로 하고 청소년 사역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정관에 밝히고 있습니다. 귀하는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앞으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기울여야 하는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선교 ② 구제 ③ 청소년 사역 ④ 기타 ()

15 % 17 % 63 % 5 %

[IV-13] 주님의교회가 정신학교 안에 위치해서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건물 무소유 ② 청소년 사역 ③ 교회행사와 주일학교 운동장 ④ 넉넉한 주차장 ⑤ 학교와의 관계

43 % 28 % 12 % 13 % 3 %

[IV-14] 귀하는 교회로부터 교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 31 % 48 % 15 % 2 %

[IV-15] 귀하가 교회에서 교회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통로는 무엇인가요? ()

① 목회자 ② 겨자씨나 아는 교인 ③ 사무실이나 교회 직원 ④ 주보 ⑤ 교회신문 ⑥ 홈페이지

7 % 29 % 1 % 56 % 5 % 2 %

[IV-16] 우리 교회는 귀하가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 % 10 % 48 % 34 % 7 %

[IV-17] 귀하가 겪는 어려움을 교회에 알리고자 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

① 담임목사님 또는 교구목사님께 알린다 ② 중직자에게 알린다. ③ 기도카드를 작성하여 중보기도를 요청한다 ④ 겨자씨 인도자 또는 권찰에게 알린다

20 % 5 % 22 % 33 %

⑤ 교회에 알고 지내는 교우에게 알린다

21 %

[IV-18]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쉽게 교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 23 % 45 % 24 % 6 %

[IV-19] 위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 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겠습니까? ()

① 새 신자 교육프로그램 ② 소그룹(겨자씨모임)으로 인도 ③ 목회자 및 지도자의 더 큰 관심 ④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함

20 % 29 % 39 % 12 %

[IV-20] 우리 교회는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 26 % 52 % 17 % 3 %

[IV-21] 귀하는 교회에서 발송하는 알림 문자메세지에 대해 현재 상태로 만족하십니까? ()

- ① 만족한다 ② 최소한으로 줄었으면 좋겠다 ③ 사소한 알릴 거리도 보내주었으면 한다 ④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71 % 10 % 12 % 7 %

[IV-22] 귀하는 교회 홈페이지를 어느 정도 활용하십니까? ()

- ① 매일 1회 이상 ② 1주일에 한두 번 ③ 1달에 한두 번 ④ 몇 달에 한 번 ⑤ 전혀 하지 않음

2 % 10 % 19 % 35 % 34 %

[IV-23] 귀하가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교회 생활 정보를 얻기 위해 ② 설교를 듣기 위해 ③ 행정 처리를 위해 ④ 교회 소식을 보기 위해 ⑤ 주보나 교회신문을 보기 위해

17 % 31 % 11 % 27 % 14 %

[IV-24] 귀하가 교회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이용하는 주요 수단은 무엇입니까? ()

- ① 컴퓨터 또는 노트북 ② 태블릿 ③ 스마트폰

53 % 1 % 46 %

[IV-25] 교회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지금보다 많은 기능(메뉴) 제공 ② 사용방법 등 편의성 ③ 화면, 메뉴, 디자인 등의 조화로운 구성 ④ 다른 모바일 앱 / 웹과의 연계성 제고 ⑤ 접속 속도 개선

7 % 22 % 5 % 4 % 4 %

- ⑥ 전도와 선교를 위한 대외 홍보 기능 ⑦ 더 풍부하고 좋은 읽을거리 ⑧ 빠르고 잘 정리된 교회 뉴스 ⑨ 스마트폰에서 쉽게 보기

5 % 12 % 15 % 26 %

[IV-26] 귀하는 교회 신문인 <함글함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신앙적 지식과 상식의 전달 매체 ② 목회자 메시지와 교회 행사 등 교회 동정을 알리는 소식지 ③ 교회 역사의 기록과 보관 매체

18 % 62 % 3 %

- ④ 교인의 일상을 전하는 소통과 친교의 창구

16 %

[IV-27] 귀하는 <함글함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

- ① 매호 꼼꼼히 읽는다 ② 매호 대충 훑어본다 ③ 눈에 띄면 읽어 본다 ④ 드문드문 읽는다 ⑤ 거의 보지 않는다

18 % 31 % 24 % 14 % 13 %

[IV-28] 귀하가 <함글함글>에서 관심 있게 읽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

- ① 1면 기사 ② 신년특집, 30주년 특집 등 신앙과 교단 관련 기획기사 ③ 교회 사역 관련 취재 기사 ④ 목회 칼럼, 교인 간증 등 목회자나 교인이 쓴 기사

12 % 10 % 14 % 34 %

- ⑤ 교회 일정, 알립니다 등 정보성 기사 ⑥ (영화로 성경 읽기 등) 알기 쉽게 쓴 신앙기사 ⑦ 특별히 관심 있는 기사가 없다 ⑧ 기타 ()

11 % 3 % 14 % 1 %

[IV-29] 귀하가 <함글함글>에서 특별히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

- ① 신학과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기사 ② 세계와 한국의 기독교 관련 기사 ③ 감동을 주는 간증기사 ④ 시각적으로 관심을 끄는 사진이나 카툰

29 % 9 % 20 % 2 %

- 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의 연재기사 ⑥ 겨자씨 소식 등 공동체의 작고 다채로운 정보기사

24 % 17 %

[IV-30] 귀하에게 <함줄함울>의 평균적인 본문 글자 크기는 읽는데 적당한가요? ()

① 크기가 적당하다 ② 글자가 약간 커 보인다 ③ 글자가 작아서 약간 커졌으면 좋겠다.

90 %

1 %

9 %

[IV-31] 귀하는 우리 교회의 여러 부서가 건물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

21 %

36 %

31 %

7 %

[IV-32] 귀하는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디자인, 문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

24 %

25 %

38 %

7 %

[IV-33] 우리 교회는 재정의 50%를 대외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교회와 교인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① 아끼고 내핍하는 생활 ② 사역의 선택과 집중 ③ 기타 ()

20 %

75 %

4 %

[IV-34] 이번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

① 설문조사는 교인들의 상황과 의견을 교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55 %

② 설문조사의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설문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34 %

③ 설문조사는 단발성 행사로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5년이나 10년 주기로 시행되어야 한다 10 %

④ 기타() 2 %

앞의 문항 외에 특별히 답하고 싶거나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전체 2,175명의 응답자 가운데 688명(31.6%)이 자유의견을 써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교회 비전과 미래에 대하여

- 30년을 바라본 미래 비전 논의 필요
- 교회 창립 원칙의 형식적 적용과 불필요한 자부심
- 재정 내핍의 생활화, 모든 사역은 자비량으로
- 청소년 / 청년 사역,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 부족
- 교회 창립 원칙의 본질에 대한 논의와 실천 필요

● 시설과 제도의 보완

-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 홈페이지 개편, 수시 갱신 필요, 기능 개선 필요
- 새신자와 초신자에 대한 좀더 깊은 관심
- 재정사용내용 공개 필요
- 오케스트라, 찬양대 등 규모 조절 필요

● 겨자씨와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 교인 수 많아 교제 어려운 현실 감안 모르더라도 인사하기 운동
- 싱글인 성도의 참여가 용이한 겨자씨 필요
- 겨자씨가 너무 커서 가정예배 불가능, 작게 나누고 목회자 참여
- 타 교회에서 상처받고 온 교인들 치유 프로그램 필요
- 좀 더 포용적이고 이타적인 분위기 조성 필요

● 사역과 봉사에 대하여

- 장애인 사역 복지 강화 필요
- 사역팀 내부의 이너썬클이 신입자에게겐 장벽, 1인 1사역 제한 필요
- 백화점식 사역 지양, 불필요한 사역 / 후원 축소, 목적에 따른 집중 사역 필요
- 사역기간 제한과 다양한 사역 경험토록 할 필요 있음
- 주차나 주방 등에서 사역자들과 교인들 서로 친절과 감사로 대할 필요

● 예배와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 예배시 핸드폰 끄고, 주머니에 넣기, 안쪽부터 채워 않기
- 예배시 기도를 간결하게 했으면
- 예배 순서의 개선-교회 소식은 예배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 예배중 찬양대 찬양에 대한 박수 자제 필요
- 개인 기도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 목회자와 향존직에 대하여

- 여러 목회자의 말씀 및 영성훈련 강화 필요
- 목회자와 향존직의 더 겸손한 자세 필요
- 목회자와의 친교, 가정심방, 목양 강화 필요
- 향존직 선출 제도 개선 필요
- 형편 어려운 교인, 사각지대에 있는 교인에 대한 관심이 요청됨

긴 시간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해 주신 이 설문지의 분석 결과는

주님의교회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어 가치 있게 쓰일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함글함글〉 400호 특집 | 돌이켜 본 〈함글함글〉 400호

돌이켜 본 〈함글함글〉 400호

이번호로 주님의교회 신문 〈함글함글〉이 400호를 맞습니다. 1992년 4월 〈나눔의 소식〉이라는 이름의 소식지로 창간되었다가 1996년 8월 〈함글함글〉이라고 제호가 바뀌어 창간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함글함글〉은 이후 만 22년 동안 교회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서 성장했습니다. 그 긴 역사를 짧게 정리했습니다.

창간 시절의 〈함글함글〉 뒷 이야기

〈함글함글〉의 전신은 교회창립 4주년이 되던 1992년 4월 창간된 〈나눔의 소식〉이라는 제호의 소식지였다. 이 소식지 발행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부목사로 재임중이던 현 김환수 주님의교회 담임목사의 주도로 1996년 8월 〈함글함글〉이 창간되었다. 창간호에서 당시 이재철 담임 목사는 “어느덧 대식구가 되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마침 남녀 선교회에서 교인들의 소식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정말 적절한 나눔으로 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정성스레 엮어지는 이 지면들이 제목이 뜻하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참된 나눔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라는 발간사를 기고했다.

살펴보면 흥미로운 당시 기사들

10호(1998. 1.)에는 교우들의 건강, 법률상식, 상담을 위하여 교우들 가운데 의사와 법조인을 소개하고 있어 이채롭다. 15호 (1998. 11.)에는 정신학교의 대강당을 준공하고 11월 첫

주에 입당 예배를 드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2,232명이 동시에 예배드릴 수 있는 대강당과 340석 규모의 중강당, 192석의 식당이 완공되었으며, 건축비 총 85억 원이 들었다.

“구역 모임의 7가지 원칙”이라니

43호(2003. 5.)에는 “구역모임의 7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1. 비밀 지킴, 2. 책임을 받아들인다, 3.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4. 서로 존중한다, 5. 가면을 벗고 진실할 것, 6. 열린 마음 갖기, 7. 서로 격려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지금 보아도 꼭 필요한 글이라고 보인다.

한편 52호(2003. 9.)에는 의료선교부에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헌혈 실시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헌혈차량이 동원되었으며, 115명이 참여했다. 57호(2003. 11.)에는 전도행사로 가수 해바라기 콘서트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다양한 봉사와 헌신의 기록

〈함글함글〉에는 교회 외부에 대한 봉사와 헌신의 기사들도 많이 수록되었다. 60호(2003. 11.)에는 ‘순천어린

이마을’의 아이들(180여 명)과 ‘군산 모자원’(150여 명)이 가지고 싶은 선물 목록을 게시하고, 교우들이 그중 하나를 골라 성탄선물로 보내는 취지의 헌신이 있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선물목록이 게시된 후 3시간 만에 자원신청이 모두 채워졌다.

74호(2004. 3.)에는 북한 용천마을에 1만 달러를 긴급 지원했는데, 단둥으로 출국하여 압록강을 통해 콩 20톤을 용천으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채로운 〈함글함글〉 자체 특집들

〈함글함글〉에서는 때에 따라 적절한 자체 특집을 기획, 교회 공동체에게 요청되는 의견 수렴의 통로 구실을 자임했다.

287호(2011. 6.)에서는 교회창립 23주년 기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교인 명부 기준 무작위 표본 추출한 교인 23명을 대상으로 ‘나와 주님의 교회’라는 주제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351호(2015. 7.)에서는 교회 창립 27주년 특집기획으로 “함글함글 지상토론 : 주님의 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제하의 기획 연재를 시작하여 이후 7차례에 걸쳐 진행, 교회 내외 여러분의 기고를 수록했다.

376호(2017. 3.)부터는 신임 담임목사 청빙 시기를 맞아 “청빙위원회 특집 기사 :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을 위해 꼭 알아야 할 12가지”를 연재하기도 했다.

399호(2018. 9.)에서는 교회 창립 30주년 특별기획으로 “함글함글 지상토론 : 주님의교회 30년과 한국사회”를 시작했다. 이 특집은 향후 교회 내외의 전문가의 기고, 인터뷰, 토론 등의 형태로 7차례에 걸쳐 수록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함글함글〉에서는 해마다 교단과 교회의 슬로건에 맞추어 연간 특집을 수록하여 교인들의 신학적 이해를 도왔다. 2016년에는 “그들로 우리와 예배하게 하소서”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통일선교 특집”을, 2017년에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에 맞추어 “종교개혁 이야기”를 연재했고, 2018년에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에 맞추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특집을 연재했다.

함글함글

〈함글함글〉 연혁

1992. 4. 〈나눔의 소식〉이라는 이름의 소식지 창간, 11호까지 발간. A4 4면.
1996. 8. [창간호]〈함글함글〉 제호의 선교지로 창간호 발행. 발행인 남녀연합선교회. 격월간. A4 4면. 당시 1면에는 이재철 담임목사의 발간사, 이재원 장로의 “함글함글 창간호에 바라는 작은 소망”의 글이 수록됨. 교회 소식, 선교회 소식, 알림마당, 교인동정 등으로 구성됨.
1996. 10. [2호] 6면으로 증면.
1997. 1. [4호] 8면으로 증면. 이후 내용에 따라 12면까지 증면.
1997. 3. [5호] 발행인이 출판부로 변경됨.
2003. 4. [41호] 주간으로 변경하면서 크기도 B4 4면으로 변경. 재생지를 사용한 것도 이때부터임. 재창간을 표방하고 통권 1호라 칭함. 편집부장 외에 편집부 기자 10명, 교회기관 기자 7명, 교회학교 기자 7명, 교구 기자 6명을 두는 등 역대 가장 규모가 큰 편집진으로 기록됨.
2004. 10. [100호] 통권 100호 1면 기사는 “수험 자녀 위한 학부모 기도행진 계속돼”였음. 2~3면에 100호 특집 기사 수록.
2006. 1. [159호] PDF파일로 저장해서 교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006. 1. [160호] 발행처 홍보출판부로 변경.

2006. 4. [171호] 부분적인 4도 인쇄. 이후 흑백과 4도 인쇄를 병행.
2006. 9. [188호] 부수를 500부에서 1,000부로 확대.
2006. 11. [193호] 이후 전면 4도 인쇄.
2007. 1. [199호] 이후 격주간으로 발행.
2007. 1. [200호] 1면 기사는 “수요예배 - 보다 친밀한 예배 공동체를 경험한다”였음.
2011. 8. 〈함글함글 편집지침〉 제정.
2012. 4. [300호] 1면에는 부활절을 맞아 박원호 담임목사의 특별기고 수록. 4~5면에 걸쳐 300호 특집 기사 수록.
2013. 1. [313호] 지면 전면 색신. 믿음과 소망, 교회와 사역, 교육과 양육, 성도의 교제, 공동체 소식, 소통의 공간으로 구분.
2015. 2. [345호] 2년 간 유지했던 디자인을 성도들이 선택한 새 디자인으로 변경. 3가지 디자인 시안을 두고 투표한 결과 439명 중 187표를 얻은 디자인으로 변경 (42.6%)
2015. 10. [355호] 배달의 함글 서비스 시작. 원하는 국내외 독자에게 배송.
2018. 9. [400호] 1면 기사는 창간호 1면 전제. 21~23면 400호 특집 기사 수록. 창립 30주년기념 설문조사 특집 포함 24면 발행 기록.

〈함즐함울〉 400호 특집 | 독자 좌담

미디어 시대의 〈함즐함울〉, 오히려 할 일이 많다

지난 9월 9일, 함즐함울팀은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표하는 교인 8명과 함께 〈함즐함울〉 400호를 기념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함즐함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수시로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격렬한 난상토론으로 이어져 예정했던 두 시간을 훨씬 넘겼지만, 참석자들이 솔직하고 진지하게 털어놓은 다양한 지적과 대안은 그대로 〈함즐함울〉과 교회를 위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값진 조언임에 틀림없었다.

함즐함울

함즐함울(이하 ‘함’) 9월 30일 발행되는 〈함즐함울〉이 400호를 맞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함즐함울〉에 대한 의견, 조언을 여쭙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명철 안수집사(이하 ‘최’)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40년 정도 되었고, 주님의교회에 출석한 지 10년쯤 되었습니다.

유지은 집사(이하 ‘유’) 몇 가지 사역을 했었고, 지금은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갑 집사(이하 ‘박’) 오랫동안 4부 예배 찬양단을 했었는데 올해 자체 안식년을 주어 쉬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에 등록한 지는 12년 되었습니다.

강혜경 집사(이하 ‘강’) 주로 어와나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관 안수집사(이하 ‘김동’) 주님의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22년입니다. 첫사랑이 주님의교회여서, 끝사랑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역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할렐루야 수요찬양단만 하고 있습니다.

김중호 안수집사(이하 ‘김중’) 주님의교회에 온 지 18년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권하는 대로 사역을 하다 보니 가정사역팀, 해외선교팀, 4부 찬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청년(이하 ‘이’) 청년부에서 양육부를 맡고 있습니다. IT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시선을 바탕으로 함즐함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영 청년(이하 ‘유재’) 청년부 부회장을 맡고 있고, 유년부 교사입니다. 초등 3학년 때 처음 주님의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함 청년 두 분이 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함즐함울〉이 장년 교인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청년 두 분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함즐함울〉을 자주 보시는지요?

이 정신여고 출신입니다. 친구들 따

라 처음 교회에 왔을 때, 〈함즐함울〉 외에는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도 〈함즐함울〉에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많지는 않아서 자주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용들이 대체로 낯설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399호를 보니 ‘번식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용어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유재 청년들은 〈함즐함울〉처럼 종이로 된 소식지는 거의 보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이 단순한 참여의 문제를 떠나, 〈함즐함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 쓴 소식이 실린다고 청년들이 찾아 읽을까요? 아마도 〈함즐함울〉의 정체성부터 청년들과 공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은 종이 매체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발하게 사용합니다. 젊은이들은 당연히 짧고 간명한 메시지에 더 익숙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텍스트가 긴 기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눈길을 끌 수 있도록 좀 더 친절하게, 시각적으로 편집되면 좋지 않을까요?

함 시각적인 편집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인포그래픽과 같은 디자인이 가미되면 독자의 시선을 끄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편집에 들일 시간이 늘 부족하고, 그것을 메꿀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신문으로서 가져야 할 내용의 수준이라도 갖추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대안을 좀더 강구해 보려 합니다.

이 청년부의 입장에서는 교회 각 부서의 소식이 많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라도 모든 부서 내용이 담기면 참 좋겠습니다. 교인 소식, 출산, 결혼, 세례 등 소소한 정보들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청년부를 포함한 부서별 변동 상황도 특집처럼

수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 소식을 서로 알 수 있으면 부서간 친근감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함 〈함즐함울〉은 이미 교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장년들을 전제로 한 매체여서 청년들이 모르는 상세한 배경과 맥락이 생략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년부에게 교회에 대한 기본 정보와 소식을 알려드릴 방법도 찾아봐야겠군요. 학생에서 청년부로 올라온 분들에게도 장년 교회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정체성이 계승되지 않을까요?

일동 청년부는 독립교회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장년부와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벗어나 장년부로 왔을 때 적응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후 청년부와 장년부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난상토론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보다보다 못한 사회자가 결국 이 난상토론을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

함 아, 이 자리에서는 〈함즐함울〉에 대한 이야기로 초점을 좁혀주시면 좋겠습니다(웃음). 〈함즐함울〉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이 〈함즐함울〉을 일년동안 모은다거나, 독후감을 보내거나, 인증샷을 올리면 커피 쿠폰과 같은 상을 준다는 식의 이벤트가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런 이벤트를 좋아합니다.

함 청년들의 의견, 정말 발랄합니다. 앞으로도 젊은 분들을 만나서 해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번엔 장년층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함즐함울〉 자주 보시죠? 어떤 기사들을 좋아하세요?

김중 자주 봅니다. 4부 찬양대에서 소식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밴드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졌습시다만. 신앙과 삶을 연결하고, 신앙을 삶에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기사를

즐거 찾는 편입니다.

함 주로 부교역자들께 부탁드립니다. 연재물들이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신학의 전문가들이시니까요.

강 선교 현장에 대한 글, 수련회를 갔다 와서 쓴 글들 속에 묘사된 풍경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글들도 꾸밈이 없어 좋아합니다. 아이들의 글이 실리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박 아까 청년부를 포함해서 각 부서별 정보를 취재하고 소통하는 방법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서와 청년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통합니다. 오히려 〈함즐함울〉에서 청년부와 교육부서의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가입하여 어떤 행사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정보를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함 정말 좋은 조언이십니다. 물론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긴 합니다만. (웃음)

최 청년과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중등부 교사가 십여명 되는데, 청년들은 또 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장년들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지원해 주는 데에서 만족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번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바람직한 목회와 양육방법, 지원방안에 대해서 난상토론이 시작되어 한동안 지속되었다. 역시 사회자가 제지하여 상황을 정리했다.)

최 “함즐함울”의 의미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라”인데, “올”에 대한 기사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뿐 아니라, 안타까운 소식, 도움에 대한 소식도 수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올”이 없으면 가슴에 와 닿지 않거든요.

〈함글함글〉400호 특집 | 전교인 설문조사 분석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기사를 더 바란다

지난 8~9월에 실시된 2018년 전교인 설문조사에는 〈함글함글〉에 관련된 문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함글함글〉에서는 설문조사를 담당했던 미디어태스크포스팀의 협조를 얻어, 연령대에 따른 심층분석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를 교회 공동체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함글함글〉역할 인식과 요청 기사에 괴리
〈함글함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 걸쳐서 압도적으로 "목회자 메시지와 교회 행사 등 교회 동정을 알리는 소식지"(62%)라는 의견이 많았고, "신앙적 지식과 상식의 전달 매체"(18%), "교인의 일상을 전하는 소통과 친교의 창구"(16%)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독자들에게는 그 중 요성이 실감나지 않아서였겠지만 "교회 역사의 기록과 보관 매체"(3%)라는 의견은 아주 작았다. 그러나 〈함글함글〉에 대한 이런 의견을 다른 문항과 교차 분석한 결과 인식과 요구 사이에 큰 간극이 나타났다. 〈함글함글〉에서 관심 있게 읽는 기사에 대해서 34%가 "목회 칼럼, 교인 간증 등 목회자나 교인이 쓴 기사"를 택했고, "교회 사역 관련 취재

기사"(14%)와 "특별히 관심있는 기사가 없다"(14%, 주로 29세 이하)에 이어, "교회 일정, 알립니다 등 정보성 기사"(11%)는 4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더욱이 〈함글함글〉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사에 대해 "신학과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기사"(29%),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의 연재 기사"(24%), "세계와 한국의 기독교 관련 기사"(9%) 등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가 기고한 신학과 기독교 관련 기사에 대한 요청이 62%에 이른다는 사실은, 교인들이 갖고 있는 '교회신문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교회신문에 기대하는 요구'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세대별 분석에서는 특히 30세 이상에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신학 정보와 기사를 기대하고 있으며, 29세 이하 그룹에서는 간증기사와 정보기사에 대한 요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영향으로 "감동을 주는 간증기사"(20%)와 겨자씨 소식 등 작고 다채로운 정보기사"(17%)가 뒤를 이었다.

젊을수록 〈함글함글〉 구독률 저조해

〈함글함글〉은 2013년부터 지면 구성을 전면 쇄신하면서, 지면을 유형에 따라 분리하여, 신학과 교계 소식을 다루는 '믿음과 소망', 교회와 사역 소식을 다루는 '교회와 사역', 교인의 간증 기사 등 친교를 도모하는 '성도의 교제', 교육과 양육,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양육', 알리는 글 등 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체 소식'으로 구성, 기사가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

도록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혼란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함글함글〉을 매호 꼼꼼히 읽는 분들이 18%에 지나지 않으며, 매호 대충 훑어보거나(31%) 눈에 뜨이면 읽어보는(24%) 교인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연령대가 젊을수록 거의 보지 않는 비율이 높고(29세 이하의 54%), 연령대가 높을수록 꼼꼼히 읽는 비율이 높다(76세 이상의 35%). 미디어 시대에 텍스트가 많은 신문이 선호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런 까닭에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진지하게 곱씹어야 하는 성경이나 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정보들이 소홀히 여겨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함글함글

함 그런 소식을 발굴하고 싶지만, 본인들이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자들도 불편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함글함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일동 신학 지식을 전달하는 일, 교회 정보의 통로, 교인 친교의 창구, 기록의 보존 기능 모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 신문은 아무래도 약간의 계몽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에서 간과되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드러내는 것도 신문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글함글〉도 신문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신앙의 근본을 되새길 수 있도록 계기를 제시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교회의 정체성과 창립정신, 그리고 그 실천과 교회의 미래에 대한 난상토론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함 〈함글함글〉이 이렇게 변하면 좋

겠다는 의견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재 친구들 가운데 타 교회에서 온 청년들이 있는데, 보통 큰 교회들에는 청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함글함글〉이 그런 통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 신문을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쉽게 읽게 되지 않습니다. 글이 많아 눈길을 끌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툰, 만화 같이 촌철살인의 효과가 있는 시각적인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강 온누리교회에서는 설교 내용을 한 컷 만화로 만들어, 그 그림 하나만 봐도 설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카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림을 잘 그리지 않더라도 내용이 전달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의 손글씨 작품도 그대로 수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투고를 어려워하므로, 피자쿠폰이나 문화상품권 등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보상을 제안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함 장년부를 제외하고 청년부 이하에게는 투고하는 분에게 소정의 보상

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을 많이 받은 〈함글함글〉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준비중입니다. 곧 시안을 공개하고, 지난번처럼 교인들의 선택을 통해 바꾸려고 합니다. 청년부나 청소년 같은 경우, 색션을 별도로 만들어 넣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좋은 얘기뿐 아니라 쓴 소리도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고요, '마을목회'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다양한 신학적 담론들을 소개하고 교인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유 솔직히 그동안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함글함글〉을 잘 보지 않았습다. 주님의교회에서 희망을 보고 교회를 옮겼는데, 교회 안에서 오래 사역을 하며 지내다 보니, 예기치 않았던 많은 안타까움들도 없지 않았습다. 그런 관행과 폐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교회 안의 다양한 갑질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모두들 할 말이 참 많은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좌담회였다.)

김중 속도가 늦더라도 좋으니 〈함글

함글〉이 교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 어떤 교회든 사람이 사는 사회인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겠지요. 미래를 바라보고,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조금씩 고쳐나가면 교회를 좀 더 낫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함글함글〉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 "잘못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 같은 기사는 재수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역탐방 기사도 다시 취재, 수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 사역과 봉사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많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역할극의 형태로 만들어서 풀어내는 캠페인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같은 제목은 어떨까요?

유재 교회 행사를 사진 중심으로 넣고 캡션을 짧게 넣으면 어떨까요? 또 학생들, 청년, 장년 사이의 소통을 위해 줄여쓰는 유행어 등을 사전 형태로 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 주신 쓴 소리 모두 공감하고, 조언 주신 것 반영할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함글함글

 아이들이
**윤선우 아기**

2018년 5월 30일생

1. 하나님 안에서 늘 강건하고 선우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기를 기도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는 행복한 아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3. 선우와 함께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섬기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빠 윤영민 / 엄마 조수민, 2018년 9월 9일 3부 예배

**하트만 레오폴드(세찬) 아기**

2018년 8월 28일생

1. 레오폴드(세찬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길 간구합니다.
2. 레오폴드(세찬이)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께 영광돌리길 간구합니다.

아빠 하트만 크리스토프 / 엄마 박혜림, 2018년 9월 16일 2부 예배

**엄수현 아기**

2018년 5월 31일생

1. 수현이가 건강하게 쑥쑥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이로 자라길
2. 수현이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이로 자라길
3. 수현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빠 엄성준 / 엄마 윤혜선, 2018년 9월 16일 2부 예배

**강하린 아기**

2018년 5월 17일생

1. 주님의 성품을 닮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분별있는 건강한 아이로 자랄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2. 하린이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오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해주세요
3.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자라 감사함으로 베풀 줄 아는 아이가 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해주세요

아빠 강태욱 / 엄마 김현미, 2018년 9월 23일 3부 예배

함글함글,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글함글>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 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알립니다****1. 가을 운동회**

일시 : 10/3(수) 오전9:30~오후4:00

장소 : 정신여중고 운동장 / 참석: 모든 교인 식구

▶ 운동회 후 수요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 아름다운 계절, 따뜻하고 즐거운 '가을 운동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 정원영안수집사(010.5339.6464)

2. 2018 통일선교바자회 물품기증 접수

일시 : 9/30, 10/7(매주일) 오전 8:30~오후 2:30

▶ 물품 : 의류, 잡화류, 생필품, 주방용품, 스포츠운동기구,

전자제품, 아동도서, 완구류, 그릇, 악세사리 등

(명절 추석선물세트도 가능)

문의 : 구태호안수집사(010.3203.1237)

3. 2018 향존직 선거를 위한 투표권자 명단 확인

기간 : 9/30(주일) 교회복도(1층)

▶ 투표권자 자격: 등록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세례, 입교인

(선거시행공고일 6/24일 기준)

4. 2018 공동의회 향존직선거

일시 : 10/7(주일)(1차) 오전8:30~오후3:30

장 소: 정신여고 본관 1층

선출인원: 장로(10명), 안수집사(20명), 권사(20명)

5. 교구 연합 금요기도회(주관: 3교구)

일시 : 10/5(금) 오후 8:00~9:30 대예배실

6. 입교 및 세례 교육(접수: 1층 안내데스크)

대상 :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교육 : 9/23~10/21(5주) 오후 1:30~3:00 초등부실(3층)

문의 : 나관주안수집사(010.4322.9917)

▶ 입교세례예식 : 10/28(주일) 3부 예배시